

Trends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related to Food and Pharmaceuticals

식약 통계로 알아본 식·의약품 생산·소비 동향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020년 식·의약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한 '2021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보는 식·의약 안전정책의 주요성과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 관련 산업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식·의약 분야 통계를 종합하여 식약처가 매년 발간하는 자료집으로, 식품의약품통계연보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통계 → 통계간행물)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음에 분석 결과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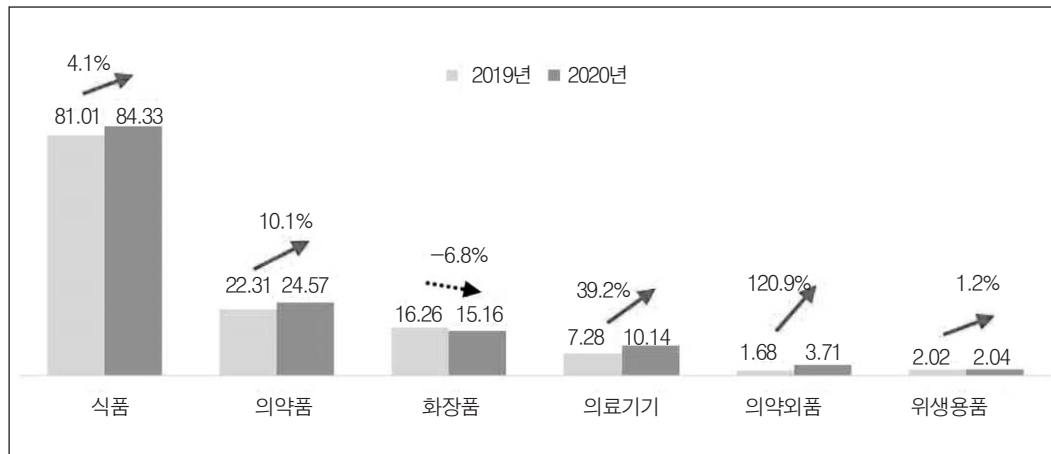
- 편집자 주 -

I. 2020년 식·의약품산업 생산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020년 식·의약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한 '2021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식·의약품 산업은 전년대비 총 생산액이 증가했고, 특히 마스크·손소독제·진단시약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산업을 중

[그림 1] 식의약품 생산액

(단위: 조 원)



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2020년 식·의약품 산업의 총 생산액은 139조 9,500억 원으로 2019년 130조 5,600억 원 대비 약 7.2% 증가했다. 특히 마스크·손소독제가 포함된 의약외품 생산액과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 생산액은 각각 3조 7,100억 원, 10조 1,40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0.9%, 39.2% 증가했으며 식·의약품산업 총 생산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식품산업의 생산액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84조 3,300억 원으로 식·의약품 산업의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했다.

II. 식·의약품산업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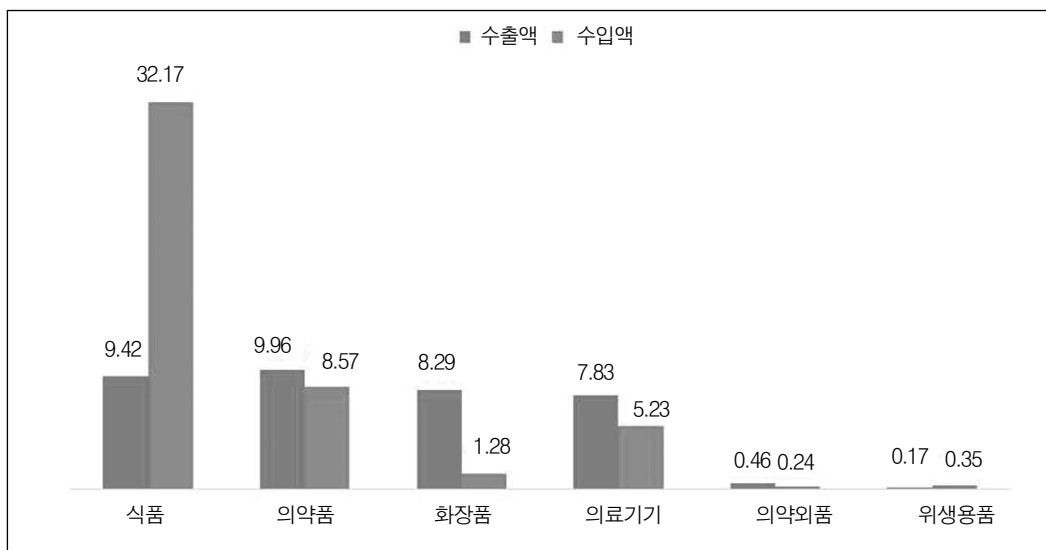
식·의약품산업의 총 수출액은 36조 1,200억 원, 총 수입액은 47조 8,4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총 수출액은 31.0%(2019년 총 수출액 27조 5,800억 원), 총 수입액은 2.0%(2019년 총 수입액 46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수출액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완제의약품과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수출액이 각각 7조 9,300억 원(2019년 수출액 4조 800억 원), 4조 2,000억 원(2019년 수출액 5,800억 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고, 화장품 분야의 수출액도 8조 2,877억 원(2019년 수출액 7조 6,0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식·의약품 생산·유통 통계에서 관찰된 코로나19와 관련한 세부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2020년 식의약품 수출입액

(단위 :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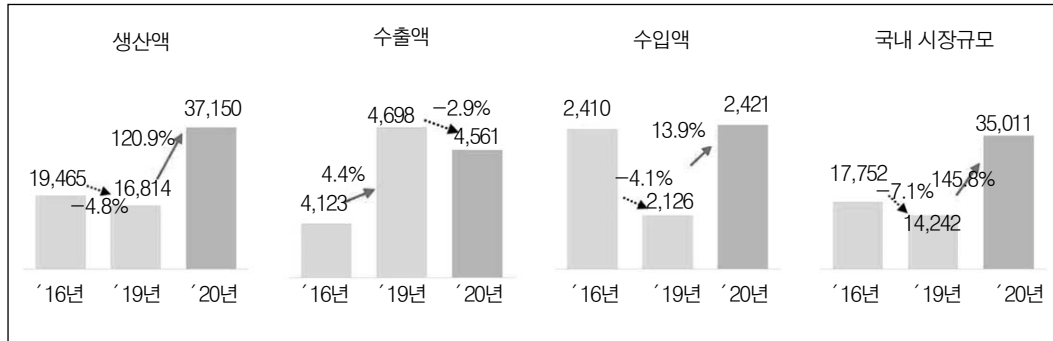
III. 의약외품, 의료기기 시장의 변화

의약외품의 경우 코로나19 예방목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액은 전년대비 120.9% 증가한 3조 7,100억 원, 국내 시장규모도 전년대비 145.8% 증가한 3조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 생산액은 2조 483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9배(818.1%) 증가하여 최근 3년 간 1위 품목인 치약제를 밀어내고 생산액 1위(점유율 55.1%)를 차지했고, 외용소독제(손소독제, 손소독티슈 등) 역시 생산액 3,89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0배(926.4%) 증가하여 2위(점유율

[그림 3] 의약외품 관련 주요 지표

(단위 : 억 원)



*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증가(감소)율은 연평균 증가(감소)율

10.5%)를 차지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진단시약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액은 전년 대비 39.2% 증가한 10조 1,358억 원을 기록했고, 진단시약의 해외수출에 힘입어 무역수지가 최초로 흑자로 전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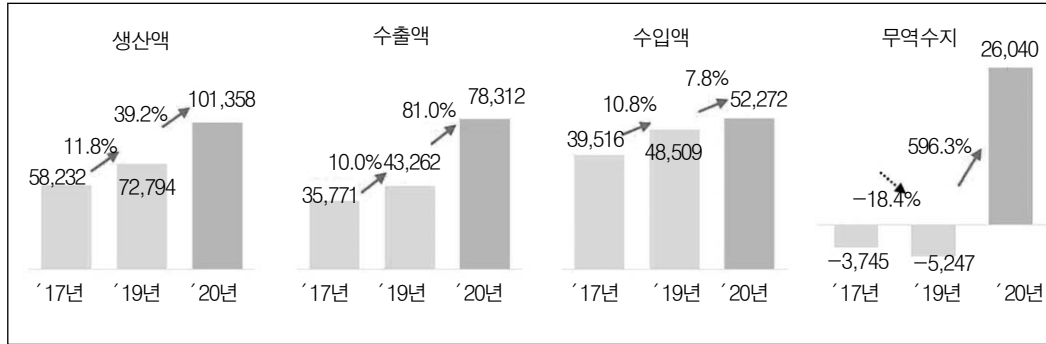
특히 체외진단 의료기기 생산액은 3조 3,5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3배(553%) 증가했으며, 그중 코로나19 진단시약(고위험성 감염체 유전자검사)의 생산액은 1조 4,267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26.4배(2,535%)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생산액 1위를 기록하던 치과용 임플란트를 2위로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표 1] 2020년 의약외품 생산액 상위 3개 품목

| 품목 | 2020년 | | | 2019년 | | 생산액 증가율 |
|-------|-------|-----------|-------|----------|-----------|------------|
| | 순위 | 생산액 | 점유율 | 생산액 | 점유율 | |
| 마스크 | 1 | 20,483억 원 | 55.1% | 2,231억 원 | 13.5%(4위) | 818.1% |
| 외용소독제 | 2 | 3,890억 원 | 10.5% | 379억 원 | 2.3%(7위) | 926.4% |
| 치약제 | 3 | 3,676억 원 | 9.9% | 5,628억 원 | 34.0%(1위) | -34.7% |

[그림 4] 의료기기 관련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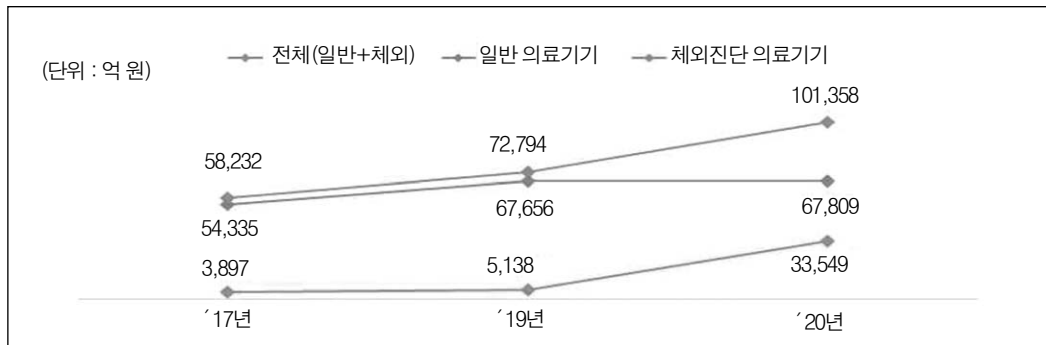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증가(감소)율은 연평균 증가(감소)율

[그림 5] 의료기기 생산액 현황

(단위: 억 원)



[출처: 2020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실적(식품의약품안전처)]

IV.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인한 변화

간편식·배달음식 소비 증가로 일회용 젓가락 생산액과 수입액이 각각 277억 4,200만 원, 349억 8,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0.5%, 11.9% 증가했으며, 즉석조리식품 생산액도 1조 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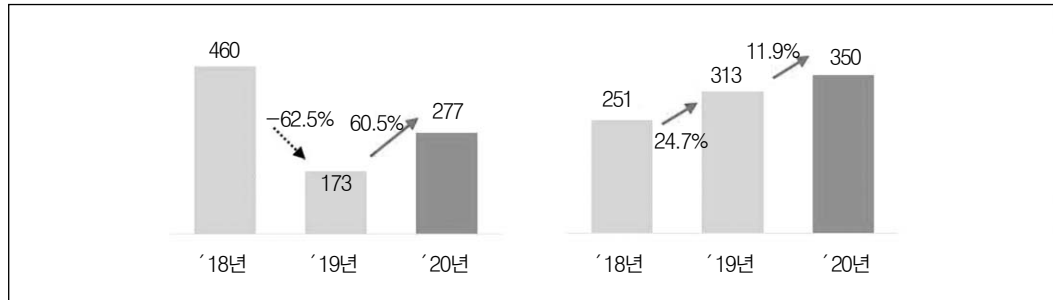
또한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직구도 증가하여 해외직구식

[표 2] 2020년 의료기기 생산액 상위 3개 품목

| 품목 | 2020년 | | | 2019년 | | 생산액 증가율 |
|-----------------|-------|-----------|-------|-----------|-----------|------------|
| | 순위 | 생산액 | 점유율 | 생산액 | 점유율 | |
| 고위험성감염체 유전자검사시약 | 1 | 14,267억 원 | 14.1% | 541억 원 | 0.7%(25위) | 2,535.5% |
| 치과용 임플란트 | 2 | 13,701억 원 | 13.5% | 13,622억 원 | 18.7%(1위) | 0.6% |
| 고위험성감염체 면역검사시약 | 3 | 10,428억 원 | 10.3% | 640억 원 | 0.9%(20위) | 1,528.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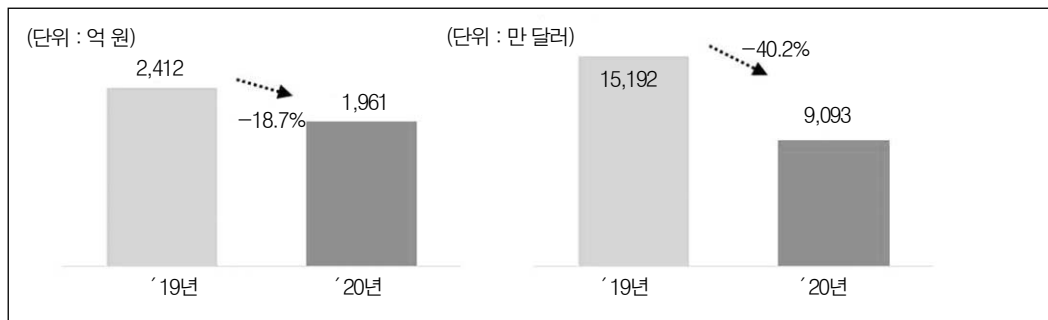
[그림 6] 일회용 젓가락 생산액과 수입액

(단위 : 억 원)



[그림 7] 매일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 생산액과 수입액

(단위 : 억 원)



품 구매건수 · 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28.7%, 21.0% 증가했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수 역시 전년대비 12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건수는 2019년 1,374만 8,000건에서 2020년 1,769만 5,000건으로(관세청 자료), 해외직구식품 구매금액은 2019년 9,112억원에서 2020년 1조 1,022억 원으로(e-나라지표 자료) 늘어났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는 2019년 3,680개소에서 2020년 8,226개소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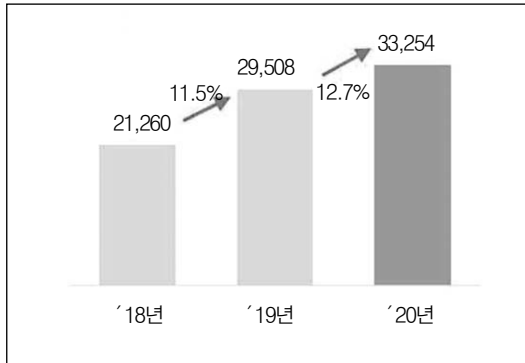
한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국내 소비 위축으로 생산 · 수출입에 변화를 보인 품목도 있었다.

그간 의료기기의 생산 · 수입 분야에서 강세를 보여온 1회용 소프트콘택트렌즈의 경우 생산액은 전년대비 18.7% 감소하여 생산액 순위가 4위에서 6위로 낮아졌으며, 수입액 역시 40.2% 감소하여 수입액 순위도 1위에서 6위로 낮아졌다.

화장품의 경우 수출액은 8조 2,877억 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액 7조 원 돌파에 기여했으나 생산액과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6.8%, 12.3% 감소하였으며 특히 색조 화장품 생산액은 전년대비 2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색조 화장용 제품류 생산액은 2019년 2조 1,338억 원에서 2020년 1조 6,752억 원으로 줄어 들었다.

[그림 8]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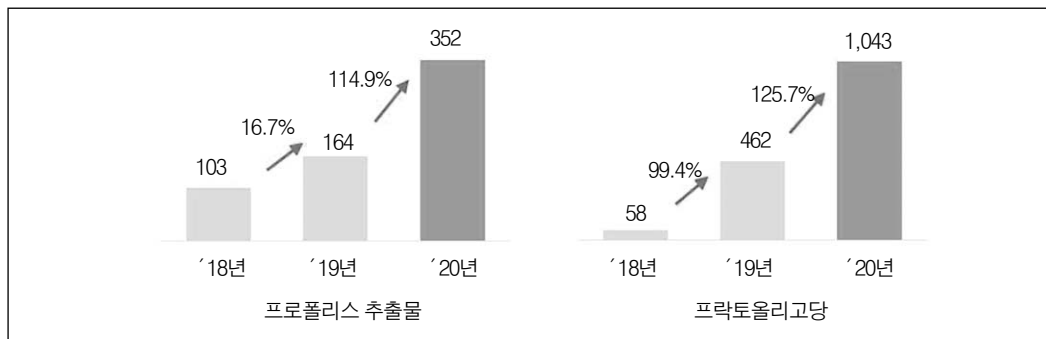
V. 개인별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코로나19로 평상 시 건강관리와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은 3조 3,254억 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1위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품목으로 홍삼의 2020년 점유율은 31.9%(1조 609억 원)이

[그림 9]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매출액

(단위: 억 원)



었다. 또한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폴리스 추출물 품목과 활동량 감소로 인한 신체기능 보완(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락토올리고당 품목의 매출액도 각각 114.9%, 125.7% 증가했다.

또한 샐러드, 절단과일 등 신선편의식품의 생산액도 2,059억 원으로 전년대비 24.4% 증가했으며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비트렌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이번 2020년 식·의약 통계자료가 식·의약 산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미래에 업계의 제품 개발 연구와 정부 정책 수립 등 식·의약 산업 발전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식·의약 통계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신규통계를 적극 발굴하고 품질 높고 의미 있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방침이다. 